

〈일반논문〉

金の 흥기와 고려 擊毬

서영교* · 김은정**

〈목차〉

- I. 머리말
- II. 騎兵 훈련과 擊毬
- III. 遼의 붕괴와 契丹人 移入
- IV. 北宋 멸망과 고려 兩京 擊毬대회
- V. 맺음말

[국문초록]

유목민·수렵민이 세운 遼-金-元의 팽창에 맞서 온 것이 고려의 역사였다. 그들이 야만인이라고 알았던 거란인·여진인·몽골인이 연이어 세계 제국을 건설했고, 고려를 침공하거나 넘보았다. 10세기에서 13세기를 통하여 고려는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강요당하게 된다.

북방 민족들은 먹고살기 위해 말 위에서 활을 쏘고 창을 휘둘러 짐승을 잡아야 했다. 그들은 사냥하면서 자연스럽게 단련된 騎馬 전사가 되었다. 하지만 농경 국가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 생활 속에서 무예를 단련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고려는 擊毬라는 놀이를 통해 騎槍·騎射 실력을 높여야 했다.

* 중원대학교 한국어교육문화학과 부교수

** 중원대학교 축구학과 교수

창이 닿을락 말락 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창을 내지르듯이 싸우는 기마술에 있어서 擊毬는 말을 타고 거리를 유지하는 허릿심을 단련할 수 있는 군사훈련이었다. 무엇보다 시위를 당겨 활을 쏘는 것과 毬杖으로 공을 쳐 날리는 것은 같은 메카니즘이다. 騎射와 打球 둘 다 곡사 계통의 기술이며, 투사물의 탄도곡선을 예상하는 감각이다.

북방에서 遼가 쇠락하고 金이 흥기 했다. 고려는 신흥세력의 등장이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고 긴장했다. 이전부터 개경 정부는 기병 자원의 보유·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받은 기수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었다. 이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나왔다. 국왕이 개최한 神騎軍의 擊毬대회가 정기적으로 열렸고, 경기 후 승률에 따라 포상하였다. 국가의 장려로 그 운동이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 되었다. 개경에 婦女로 구성된 擊毬팀이 생겨날 정도였다. 1116년 여자 선수들이 기마 상태로 뒤엉켜서, 몸싸움하고 서로 공을 차지하려고 毬杖을 휘두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국왕이 거부감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1123년 北宋 사절단의 일원으로 방문한 徐兢이 고려 기병을 목격하고 이러한 내용의 기록을 남겼다. '고려에서 우연히 강한 병사(勁卒)를 만났다. 그들은 말방울을 울리며 치달듯이 달렸다. 등자에 발을 걸고 안장 위에 앉아 말을 모는 것이 에리하면서도 가볍고 용맹하면서도 민첩하였다.' 고려의 騎兵力은 어느 수준에 올라가 있었다.

하지만 金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1125년에 遼가 멸망하고, 金이 그 영토 전역을 접수하였고, 북중국을 파먹어 들어갔으며, 이듬해인 1126년 정월 河北 磁州(현 邯鄲市)에서 金의 17騎兵이 北宋 보병 2000과 싸워 절반을 사살했다. 17騎는 1명도 죽지 않았다. 11월에 金軍이 北宋의 수도 開封을 함락시키고, 황제와 그 가족과 대신 등 3000을 잡아갔다. 北宋의 멸망이 던진 충격에 고려는 떨었다.

1127년 국제적 긴장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고려는 축제와 같은 행사를 했다. 개경과 서경 兩京이 대결하는 擊毬 대회를 개최했고, 온 나라의 시선이 그 시합에 집중되었다. 왕경 毬庭에서 왕 이하 수많은 관중이 바라보는 가운데 두 도시의 神騎가 격돌했다. 기록이 소략하여 참가 선수들의 이름, 승패 등은 알 수 없지만, 기존부터 있었던 兩京 간의 경쟁심을 더욱 상승시킨 것이 확실하다. 仁宗은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騎兵力 상승으로 전환하려 했다. 경기가 끝나고 왕이 선수들에게 상금을 내렸다.

『高麗史』를 보면 군인들이 神騎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말과 호화로운 마구를 자비로 마련한 기록이 보인다. 神騎軍이 되어 국왕이 관전하는 擊毬 경기에서 선수로 뛰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있었다.

스포츠는 출세의 사다리이기도 했다. 擊毬에 중독되어 있던 毅宗은 그 운동에 뛰어난 武臣들을 총애했다. 鄭仲夫와 慶大升 등을 비롯한 고려 武臣政權 내부에 적지 않은 유력인사들이 毅宗 휘하의 擊毬 선수 출신이었다. 擊毬가 고려정치사에 지워지지 않은 흔적을 남긴 증거이다.

□ 주제어

擊毬, 騎兵, 神騎, 契丹, 女眞

I. 머리말

1116년 4월 28일 고려 개경이었다. 서경을 다녀온 睿宗을 맞이하는 행사가 馬川亭 앞에서 개최되었다. 백관들은 장대한 儀仗과 樂隊를 준비하였다. 왕이 나타나자 260명으로 구성된 大樂·170명의 管絃, 兩部の 樂工들이 일제히 악기를 연주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女妓 舞姬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양부는 기이하고 사치스러움을 경쟁적으로 연출했다.¹⁾

1) 『高麗史』 권14, 睿宗 11년(1116) 4월 28일 “時留守百官, 備儀仗樂部, 迎駕於馬川亭, 大樂管絃兩部, 爭務奇侈(당시 개경에 남아 있던 백관이 儀仗과 악대를 준비하여 馬川亭에서 御駕를 맞이하였는데, 大樂과 管絃의 양부에서 다투듯이 기이하고 사치스럽게 힘을 쏟았다).

宋芳松, 「高麗의 大樂署와 管絃房」, 『韓國學報』 44, 일지사, 1986, 10쪽 참조.

그 가운데 백관들은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말을 타고 毬杖을 든 두 婦女 무리가 毬庭에 등장했다. 고려의 단오절 擊毬 시합을 기록한 「龍飛御天歌注」를 참고하여 그 장면을 그려보면 이렇하다. 백관들이 관람석 앞 운동장에 毬門을 세우고, 婦女 擊毬팀을 대기시켜 놓았다. 두 팀으로 나누어진 그들은 화려한 擊毬衣를 입고 한껏 꾸몄다. 女妓 1명이 공을 잡고 앞으로 나아간다. 연주되고 있던 음악이 멈추면 그녀가 공을 던진다. 두 팀이 모두 말을 달려 공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고, 잡은 자가 毬門으로 달려든다.²⁾

婦女가 격렬한 운동인 擊毬 경기를 했다. 여자들이 기마 상태로 뒤엎쳐서, 몸싸움하는 거친 장면을 목격한 왕이 거부감을 드러내 경기가 중단되었다.³⁾ 개경에 婦女들로 구성된 擊毬 선수단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한 1126년 11월 金軍이 北宋의 수도 開封을 함락시킨 6개월 후 개경-서경 兩京 대항 擊毬대회가 있었다. 국제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고려가 축제와도 같은 스포츠 행사를 개최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는가.

필자는 어떤 특정 스포츠 종목의 급진적인 유행은 그 자체의 매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먼저 기병 훈련과 擊毬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金の 흥기로 遼가 무너지면서 契丹人들이 고려에 대거 유입되었고, 그 유목민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해 보았다. 이

2) 한오수, 「高麗 擊毬에 관한 考察」, 『體力科學研究』 14-1, 圓光大體力科學研究所, 1992, 114쪽 참조.

3) 『高麗史』 권14, 睿宗 11년(1116) 4월 28일 “以至使婦女, 馳馬擊毬. 王命黜之, 其戲遂絕(婦女子로 하여금 말을 타고 달리며 擊毬를 하기에 이르렀다. 왕이 물리치라 명령하여 그 놀이는 그만두게 되었다).”

어 금의 공격을 받고 北宋이 멸망한 직후인 1127년에 개최된 고려 兩京 擊毬대회가 주는 의미를 음미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맺음말에서 擊毬의 유행이 고려의 정치사에 준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II. 騎兵 훈련과 擊毬

擊毬에는 양면성이 있다. 놀이로서는 너무나 위험한 운동이지만, 선수 들은 말할 수 없는 환희를 느끼며, 중독성이 강하다. 어느 기록에서든 신 하들이 왕의 擊毬 중단을 요구하는 모습이 보이며, 왕들은 좀처럼 그것을 끊지 못한다. 『封氏聞見記』 卷6, 打球 조를 보자.

永泰(765~766) 연간에 蘇門山人 劉綱이 鄴下에서 刑部尙書 薛公(薛嵩)에게 상서하여 말했다. “打球는 첫째로는 사람을 해치고 둘째로는 말(馬)을 해칩니다. 즐거움을 찾는 방법이 심히 많거늘, 하필이면 이런 지극히 위험한 것을 타고서 잠깐의 즐거움을 얻고자 한단 말입니까! 薛公은 그의 말을 기뻐하며 劉綱의 모습을 그려 座右에 두었으며, 掌書記인 陸長源에게 명하여 贊을 지어 그를 기리게 했다. 그러나 打球는 軍中の 일반적인 놀이였기에 폐지할 수 없어서 때때로 다시 하곤 했다.⁴⁾

劉綱은 사람과 말이 다치는 擊毬의 위험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擊毬

4) 『封氏聞見記』 卷6, 打球 조 “永泰中(765年-766年), 蘇門山人劉綱, 於鄴下上書於刑部尙書薛公云: “打球一則損人, 二則損馬。為樂之方甚眾, 何必乘茲至危, 以邀晷刻之權邪!” 薛公悅其言, 圖綱之形置於座右, 命掌記陸長源為贊美之。然打球乃軍中常戲, 雖不能廢, 時復為耳。”

는 기마 상태로 선수들끼리 엉켜 몸싸움을 벌이면서, 毬杖을 맹렬히 휘둘러야 하는 매우 거친 경기로 뇌 손상 등의 부상 위험이 가장 큰 운동이다. 말의 운동 에너지와 毬杖의 길이에서 나오는 원심력으로 강력한 타격력이 나오며, 작은 공을 신경 쓰다가 떨어지면 말에 짓밟혀 사망하는 선수도 생긴다. 말도 경기 중에 다칠 위험이 있는데 선수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올림픽 종목에 Polo(擊毬)가 들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 운동은 軍中에서 하는 것이라 능히 폐할 수 없었다. 기병의 훈련에 있어 擊毬는 필수 운동으로, 기마 궁술과 기마 창술 훈련의 바탕이 된다. 창이 닿을락 말락 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강력한 창을 내지르듯이 싸우는 기마술에 있어서, 擊毬는 말을 타고 거리를 유지하는 허릿심을 적절히 단련할 수 있는 군사훈련이었다.

무엇보다 毬杖으로 공을 쳐 날리는 것 자체가 활 쏘는 것과 같은 메카니즘이다. 毬杖으로 바닥의 공을 쳐 날리는 것, 활로 화살을 쏘는 것 둘 다 곡사 계통의 기술인 것이다. 擊毬는 투사물의 탄도곡선을 감으로 계산하는 능력을 배가시켜 실전 기마 궁술 훈련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조선의 世宗은 이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임금(세종)이 대언들에게 이르기를, 그것의 치는 이치를 생각하여 보면, 말을 잘 타는 자가 아니면 능히 하지 못하고, 그 달리는 재능에 있어서도 반드시 騎射보다 갑절이나 능해야만 칠 수 있기에 무예를 연습하는 데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고려조의 전성기에도 또한 무예를 연습하기 위해 하였던 것인데, ...”⁵⁾

위의 자료는 擊毬에 3가지 정보를 전한다. 첫째 騎馬에 아주 능숙한

5) 『世宗實錄』 권49, 世宗 12년(1430) 9월 21일 己未.

자만이 그 운동을 할 수 있었다. 선수는 騎馬 상태에서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능숙하게 달리는 기능의 보유자이다. 둘째 선수는 흔들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아 움직이는 목표에 적중하는 騎射 기능의 보유자보다 말을 다루는데 감절이나 능하다. 셋째 고려 전성기에 騎兵 훈련을 위해 격구가 크게 장려되었다.

여기서 『遼史』 卷81, 蕭孝忠傳에 보이는 발해인의 擊毬 금지 완화 요청 기록이 주목된다.

蕭孝忠(은). … 重熙 7년(1038)에 東京留守가 되었다. 당시에 발해인들이 擊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蕭孝忠이 말하기를, “東京은 가장 중요한 鎭인데 사냥할 지역이 없습니다. 만약 말을 타고 擊毬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무예를 익히겠습니까? … 마땅히 그 금령을 완화하셔야 하옵니다.” 라고 하였다. (遼 황제가) 이를 따랐다.⁶⁾

東京은 5道 중의 하나로 遼가 발해를 멸망시킨 후, 발해 유민과 여진 족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1038년에 東京留守로 부임한 蕭孝忠이 遼 황제에게 東京은 가장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지만 사냥할 지역이 없어 騎馬 擊毬를 하지 않으면 군사들이 무예를 익힐 수 없다고 했다. 東京이 위치한 남만주 遼陽 지역에 사냥터가 적었다면 고려는 말할 것도 없다.

고려의 국가적 擊毬 장려는 농경사회가 가진 한계에서 기인했다. 초원이나 방대한 산림에서 생활하는 유목민·수렵민은 사냥하면서 자연스럽게 騎射·騎槍의 기술을 습득하지만, 고려에서는 그것이 어려웠다.

유목민이 세운 遼-金-元の 팽창에 맞서 온 것이 고려의 역사였다. 고

6) 『遼史』 卷81, 列傳11 蕭孝忠 “蕭孝忠. … 重熙七年, 爲東京留守. 時禁渤海人擊毬. 孝忠言, “東京最爲重鎭, 無從禽之地. 若非毬馬, 何以習武? … 宜弛其禁.” 從之.”

려인들이 야만인이라고 알았던 거란인·여진인·몽골인이 연이어 세계 제국을 건설했고, 고려를 침공하거나 넘보았다. 10세기에서 13세기를 통하여 고려는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요당한다.

거란과 고려의 3차에 걸친 전쟁은 한국 역사에 큰 충격과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993년 10월 蕭遜寧의 침입, 1010년 11월 遼 成宗의 침입, 1018년 12월 蕭排押의 침입, 세 번의 큰 전쟁이 있었다. 고려가 유목제국 遼와 전쟁을 한 이후 기병의 양성에 국력을 쏟았을 것이다. 아래의 기록이 그 흔적이 아닌가 한다.

(文宗) 17년(1063) 2월에 여러 州鎭의 군인으로 이미 戰馬 2科 이상을 점검받은 神騎와 일찍이 전투를 경험한 步班은 아울러 苦役을 면제하도록 하고, 다만 진실로 원하는 役事만을 허락할 것이며, 戰馬를 가지고 例 따라 익히고 배우는 자도 또한 苦役을 면제하도록 하였다.⁷⁾

1063년 2월에 여러 州鎭의 군인으로 戰馬 2개 과정(科) 이상을 점검 받은 神騎軍은 苦役을 면제하고, 戰馬를 타고 국가가 정한 법식에 따라 훈련받은 騎手도 그렇게 하였다. 국가는 세금 면제 혜택을 주어 기병 자원을 보유·유지하려고 했다.

1104년 完顏 여진이 두만강 유역으로부터 고려 장성의 동북쪽에 이르는 曷懶甸 지역으로 세력을 뻗쳐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강성해진 完顏部가 그 지역의 여진인들 가운데 고려에 복속하고 있던 7개 촌락을 공격하였고, 달아난 자들을 추격하여 定平의 장성 부근까지 왔다.⁸⁾

그해 고려의 林幹이 여진을 공격하였으나 크게 패배하였다. 다시 樞密

7) 『高麗史』 권81, 志 35 兵.

8) 『高麗史節要』 권7, 肅宗 9년(1104) 정월 “東女眞 1,753인이 來投하였다.”

院使 尹瓘이 여진 정벌에 나섰으나 패퇴하고 말았다. 윤관은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보고했다. “여진인들은 기병인데 고려군은 보병이다.”⁹⁾ 12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인 고려 조정은 別武班을 창설하였다.

숙종 9년 12월에 윤관이 아뢰어 처음으로 별무반을 두었다. 文武散官·吏胥에서 商賈·僕隸·州·府·郡·縣의 백성(民)에 이르기까지 말이 있으면 神騎軍으로 삼고, 말이 없으면, 神步軍·跳盪軍·梗弓軍·精弩軍·發火軍으로 삼았다. 20세 이상인 자 가운데 과거 응시자가 아니면 모두 신보군에 소속시키고, 양반과 함께 여러 鎭과 府의 병사를 4계절 훈련하였다. 또 사원의 僧徒를 선발하여 항마군으로 삼았다.¹⁰⁾

별무반을 조직할 때 개인이 말을 가지고 있으면 神騎軍에 편성하고, 말이 없으면 神步軍으로 삼았으며, 국가의 동원 범위는 文武散官·吏胥에서 商賈·僕隸·州·府·郡·縣의 백성(民)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방대했다. 사원의 승려도 예외가 아니었다.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하여 春夏秋冬에 훈련하게 했다.

神騎의 경우 馬·騎手가 기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탄보병’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閔瑛墓誌銘」이 주목된다.

(閔瑛)군의 사람됨은 호방하고 씩씩하여, 어려서 매와 개로 사냥하는 일[鷹犬弋獵之事]을 좋아하였으며, 말을 달리고 擊毬하며 벼슬길을 구하지 않

9) 『高麗史』 권96, 列傳9 諸臣 윤관.

10) 『高麗史』 권81, 志 35 兵 “肅宗 九年十二月 尹瓘奏 始置別武班 自文武散官吏胥 至于商賈僕隸 及州府郡縣 凡有馬者爲神騎 無馬者爲神步跳盪·梗弓·精弩·發火軍等 年二十以上者 非學子 皆屬神步 兩班 與諸鎭府軍人 四時訓練又選僧徒 爲降魔軍”

았다. 아버지 민효후는 동계병마판관(東界兵馬判官)이었는데 적국(敵國)과 싸우다 사망하였다. 이로써 한을 품고 복수로 아버지의 치욕을 씻고자 생각하였다. 마침 예종[睿廟]이 동쪽 오랑캐[東虜]를 정벌할 때를 만나 신기군[神騎]이 되기를 청하였다. 갑신년(숙종 9년, 1104)·정해년(예종 2년, 1107)·무자년(예종 3년, 1108)·기축년(예종 4년, 1109) 4년 동안 변방에서 근무하며[赴防] 매년 선봉으로 돌진하여 적을 사로잡거나 물리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 군은 갑자기 병이 들어 경오년(의종 4년, 1150) 11월 19일에 사망하였다. 나이는 76세이다.¹¹⁾

閔瑛(1075~1150)은 감찰어사 閔孝侯의 아들이다. 東界兵馬判官에 임명된 아버지가 여진과 싸우다가 전사하자 神騎軍에 입대했고, 1104년에서 1109년 사이의 전쟁에서 매년 선봉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고 한다. 실전에서 활약을 고려하면, 민영과 그의 戰馬는 人馬一體였을 것이다.

입대하기 전 민영은 매와 개로 사냥하는 일[鷹犬弋獵之事]을 좋아하였으며, 말을 타고 擊毬를 했다고 한다. 혼자 그 운동을 할 수 없다. 주변에 적지 않은 선수들이 있어야 하고, 그들로 구성된 팀들이 있어야 한다. 擊毬에 단련된 그가 29세에 神騎가 되었다. 물론 이는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와 팀을 이루어 함께 擊毬를 했던 동료들은 물론이고, 다른 여러 지역에서 그 운동을 했던 馬 소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고려에서 擊毬의 사회적 확산이 기병 전력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었다.

아래는 명종(재위 1170~1197) 시기 刑部侍郎 白任至가 범인을 찾아낸 수사 기록이다.

당시 중군(中軍)이 전마(戰馬)를 점검하였는데, 注簿同正 趙英仁의 말안

11) 「閔瑛墓誌銘」.

장과 복식(服飾)이 매우 화려했다. 조영인이 神騎班에 들어가는 것을 요구하자, 백임지가 말하기를, “조영인의 집이 본디 가난한데 지금 갑자기 부자가 되었으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체포하여 법사(法司)에 넘겼다. ...¹²⁾

국가가 軍의 戰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였고, 馬具와 기마복은 개인이 마련했다. 고가의 말안장과 복식을 구매한 조영인이 神騎에 소속되기를 청했다는 것을 보면, 그것이 고려 병사들에게 선호되는 병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급하겠지만 神騎는 국왕 앞에서 擊毬를 하는 특혜를 가진 군사 집단이었다.

神騎에 대한 선망은 양질의 말과 고급 마구에 대한 수요를 낳기도 했을 것이다. 北宋의 사절로 온 徐兢은 “고려는 大金과 멀지 않은 까닭에 駿馬가 많다.”¹³⁾ 라고 하였다. 이는 『高麗史』 권14, 睿宗 10년(1115) 1월 조의 다음 기록과 일치한다.

“그(生女眞의) 지역에는 … 駿馬가 많은데, 그중에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말도 있었다. … (女眞은) 남쪽으로는 우리(고려) 국경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 來朝할 때마다 사금[麄金]·담비 가죽·良馬 등을 예물로 가져왔고, 우리 조정에서도 역시 銀幣를 후하게 주었는데 해마다 항상 이렇게 하였다.”

고려가 매년 여진인에게 銀幣를 후하게 지불하고 馬를 꾸준히 수입하면서,¹⁴⁾ 고려에 駿馬의 수가 증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女眞産 馬

12) 『高麗史』 권100, 열전 13 諸臣 백임지.

13) 『宣和奉使高麗圖經』 卷15, 車馬 使節馬 “高麗去大金不遠, 故其國多駿馬.”

14) 『高麗史』 권14, 睿宗 10년(1115) 1월 조. 한편 여진에서 말을 수입하는 사례는 국초

가 선호된 것은 체격과 체력이 월등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1106년 2회에 걸친 神騎軍 사열이 있었다.

(1106년 정월 睿宗이) 神騎軍을 사열하였다.¹⁵⁾

(1106년 11월 6일) 尹瓘과 吳延寵이 神騎·神步軍을 崇仁門 밖에서 사열하였다.¹⁶⁾

당시 고려는 동북면 방비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별무반을 훈련시켜 여진 정벌을 준비했다. 마침내 睿宗은 1107년 10월 尹瓘을 원수로 임명하여 2차 여진 정벌을 단행하였다.¹⁷⁾

(1109년 2월 26일) 왕이 神鳳門 밖에서 神騎軍을 사열하였다.¹⁸⁾

(1109년 3월 6일) 왕이 重光殿에서 神騎軍을 사열하였다.¹⁹⁾

(1109년 8월 2일) 神騎軍 군사들이 東界에서 돌아왔다. 왕이 重光殿 西樓에 거둥하여 그들을 위로하며 이르기를, “동계 전투에서의 패배는 장수의 잘못이니 내가 어찌 너희의 노고를 잊겠는가?”라고 하였다.²⁰⁾

부터 보인다. 『高麗史』 권2, 定宗 3년(948) 秋 9월 “東女眞의 대광 蘇無蓋 등이 와서 말 7백 필과 토산물을 바쳤다. 왕이 天德殿에 나와서 말을 검열하고 3등으로 구분하여 그 값을 평정하였는데 1등 말은 은주전자 1개·무늬 비단과 무늬 없는 비단 각 1필이요, 2등은 은바리때 1개·무늬 비단과 무늬 없는 비단 각 1필이요, 3등은 무늬 비단과 무늬 없는 비단 각 1필이었다.”

15) 『高麗史』 권81, 志 35 兵.

16) 『高麗史』 권12, 睿宗 元年(1106) 11월 癸巳.

17) 『高麗史』 권12, 睿宗 2년(1107) 10월 壬寅.

『高麗史節要』 권7, 睿宗 2년(1107) 12월 “東女眞 裒乙乃 등 3,230인이 來附하였다.”

18) 『高麗史』 권13, 睿宗 4년(1109) 2월 辛丑.

19) 『高麗史』 권13, 睿宗 4년(1109) 3월 庚戌.

20) 『高麗史』 권13, 睿宗 4년(1109) 8월 甲戌.

1109년 2월과 3월 2회의 神騎軍 사열이 있었고, 8월에 윤관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다. 승리하지 못했지만, 왕이 그들을 위로했다. 고려가 준비된 전쟁을 했다고 해도 흥기 하는 完顏 여진의 騎兵을 당해낼 수 없었다.

(1110년 1월 21일) 왕(예종)이 중광전의 남쪽 누각에 거둥하여 神騎軍 군사들의 擊毬를 관람한 후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²¹⁾

(1110년 9월 14일[음]) (예종) 5年 9月 남명문에서, 神騎·神步·精弩·跳盪班軍將 등을 검열하고, 神騎에 영을 내려 打毬를 하게 하고, 차등 있게 물품을 내렸다.²²⁾

위는 『高麗史』에서 최초로 보이는 神騎의 擊毬 시합과 포상 기록이다. 여진과 6년 전쟁을 한 직후였다. 전쟁에 단련된 적지 않은 기병들이 생겨났고, 擊毬로서 그 전력을 유지·보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합은 사전에 공고되었을 것이다. 神騎만 擊毬를 했고, 기병과 무관한 병종은 제외되었다. 임금의 관전하는 시합에서 우수한 기량을 보이기 위해 神騎는 평소 특별 시합을 지속하였을 것이며, 포상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한 神騎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된다.

21) 『高麗史』 권13,睿宗 5년(1110) 1월 21일 “庚申 御重光殿南樓, 閱神騎軍士擊毬, 賜物有差.”

22) 『高麗史』 권81, 志 35 兵 “五年九月 御南明門, 閱神騎·神步·精弩·跳盪班軍將等, 仍令神騎打毬, 賜物有差.”

III. 遼의 붕괴와 契丹人 移入

1114년 만주에서 큰 변화가 감지되었다.

(1114년 10월)이 달에 生女眞의 完顏阿骨打가 군사를 내어 반란을 일으켰다. 遼의 동경병마도부서사에서 첩(牒)을 보내 이르기를, “근래에 生여진이 반란을 일으켰기에 다만 관원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토벌한 후 지휘(指揮)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국에서도 또한 여진의 변경 도로에 조치를 취하여 깊숙이 들어가 공격한 후 인구나 재산 가옥을 점거하여 포로로 잡거나 소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비를 굳게 하여 고려 경계의 험요한 곳으로 들어와서 피신하지 못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²³⁾

그해 10월 生여진의 阿骨打가 遼의 종주권에 대항해 군대를 일으켜 하얼빈 남쪽의 寧江지역을 점령하였다.²⁴⁾ 遼에서 고려에 사신을 보내, 여진을 소탕하거나 국경 내부로 들어오면 막아주기를 것을 당부하였다.

(1115년 1월) 이달에 生女眞의 完顏阿骨打가 황제를 칭하면서 이름을 킷이라 고치고 국호를 金이라 하였다. 그 풍속은 匈奴와 같아서, 모든 부락에는 성곽이 없고, 산과 들에 흩어져 살았다. 문자가 없어서 말[言語]과 노끈으로 매듭을 지은 것[結繩]으로 약속을 했다. 그 지역에는 돼지·양·소·말 등이 풍부하고 駿馬가 많은데, 그중에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말도 있었다. 사람들은 사냥과 용맹하여 어려서는 활로 새나 쥐 등을 쏘아 잡다가

23) 『高麗史』 권13, 睿宗 9년 10월 조.

24) 르네 그루쎬(저), 김호동 외(역),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 1998, 212쪽.

커서는 활시위를 당기고 말을 달리면서 싸움을 익혀 강한 병사가 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모든 부락이 각자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 탓에 부족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다.²⁵⁾

여진에는 駿馬가 많은데, 그 가운데 뛰어난 말은 하루에 1000리를 달렸다고 한다. 거친 환경에서 살아가는 여진인은 용맹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활로 새나 쥐 등 작은 동물을 사냥하면서 성장기를 보냈으며, 성인이 되면 말을 타고 큰 동물을 사냥했다. 그들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강력한 기마 전사가 되었다.

위의 기록은 생활의 차이에서 오는 여진과 고려의 기병력 우열을 보여 준다. 여진인은 먹고살기 위해 사냥했고, 자연스럽게 훈련된 기병으로 거듭났다. 생산이 훈련이었다. 농경사회인 고려에서는 그렇지 못했기에, 비생산적인 놀이를 통해 騎兵力을 유지해야 했다.

분열되어 있던 여러 여진 부족들이 完顔部에 의해 통합 되자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 1115년 정월 完顔部の 阿骨打가 황제로 즉위하여 국호를 金 연호를 收國으로 정했다. 그리고 金軍은 黃龍府를 포위해 耶律斡里朶가 거느린 遼軍을 물리치고 達魯古城을 점령하여, 나머지 세 길의 遼軍을 압박하여 싸우지도 않고 후퇴하게 하였다. 같은 해 8월 遼가 고려에 원병을 요청했다. 宰相 이하 신료들의 회의가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²⁶⁾ 9월에 金軍이 黃龍府를 점령했다.²⁷⁾

고려는 전쟁준비에 들어갔다. 같은 해 9월 20일 개경 東池에서 왕이

25) 『高麗史』 권14,睿宗 10년(1115) 1월 조.

26) 『高麗史』 권14,睿宗 10년(1115) 8월 8일(乙巳) “召宰樞·侍臣,都兵馬判官,諸衛大將軍以上,問至再三,卒無定議.”

27) 『金史』卷2,太祖本紀 2 收國 元年(1115) 9월-12월 조.

李桂芝(저), 나영남·조복현(역), 『요·금의 역사』, 신서원, 2014, 356-357쪽.

직접 武士들을 선발하였고, 10월 5일 같은 장소에서 서경 청년들을 개경으로 불러 병사로 선발하였다.²⁸⁾ 그리고 같은 달 11일에 왕이 친히 六道(전국)의 神騎將士들을 개경으로 불러 東池에서 사열하였다.²⁹⁾ 전쟁을 염두에 두고 전국적인 병력 선발·차출을 단행했다.

1115년 12월 金의 騎兵 2만이 遼軍을 크게 격파하여 죽은 사람이 100리를 이었고, 수많은 수레와 가마, 장막과 휘장, 무기와 기구 등 군수품을 획득하였다. 그 외 보물과 헤아릴 수 없는 馬·牛도 노획했다.³⁰⁾ 그해 阿骨打가 遼陽을 함락시켜 만주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였다.³¹⁾

1116년 4월 7일 阿骨打가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庚午(7일) 金主인 阿骨打가 阿只를 파견하였다. 辛未(8일) 中書門下省에서 아뢰기를, “遼가 女眞의 침략을 받아 매우 위태로운 형편이니, (요에서 받은 正朔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公私의 문서에서 天慶이라는 연호를 삭제하고 간지[甲子]만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³²⁾

金의 세력이 확고해지자, 고려 예종은 그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遼의 연호가 고려의 문서에서 사라졌다.

1117년 1월 金軍이 春州를 공격하였는데, 遼軍이 싸우지도 않고 스스로 무너졌고, 女古와 皮室 4部 및 발해인이 모두 항복하였으며, 다시 泰

28) 『高麗史』 권14, 睿宗 10년(1115) 9월-10월 조.

29) 『高麗史』 권14, 睿宗 10년(1115) 10월 丁未 조.

30) 『金史』 卷2, 太祖本紀2 收國 元年(1115) 9월-12월 조.

李桂芝(저), 나영남·조복현(역), 앞의 책, 2014, 356-357쪽.

31) 르네 그루쎬(저), 김호동 외(역), 앞의 책, 1998, 212-214쪽.

32) 『高麗史』 권14, 睿宗 11년(1116) 4월 8일 조.

州를 함락시켰다.³³⁾ 1120년에 金은 동몽골 시라무렌의 臨潢을 점령하였다. 1121년 遼는 결정타를 맞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1122년 金軍이 燕京을 차지하고, 熱河 赤蜂 근처의 大定과 산서 북부의 大同을 점령하였다. 1123년 승리가 절정에 달했을 때 阿骨打(金太祖)가 죽고 동생 吳乞買(金太宗, 1123-1135)가 계승했는데 그는 형보다 더 야심 있는 인물이었다.³⁴⁾

“天會 2年(1124), 同知南路都統 鶻實答이 奏하기를 ‘高麗가 叛亡者를 받아들여(納) 邊방에 防비를 증강하니(增邊備), 필시 變 계획이 있는가 必니다(必有異圖).’ 하니. (金太宗이) 詔를 내려 이르기를(詔曰): ‘대체로 通問이 있을 적에는 통상적인 規칙을 어기지 말고, (고려가) 曷시라도 침략하면 그들과 싸워라. 그렇지 않고 함부로 먼저 고려를 침략한 자는 승전을 하더라도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 하고. 闍母에게 甲士 1000人을 거느리고 海島에 주둔하여 (고려를) 防비하도록 했다.”³⁵⁾

1124년 국경지대 근무하던 金 당국자들이 고려가 도망자들을 받아들여 邊방에 防비를 증강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金太宗은 압록강 하류 섬에 군대 1천을 주둔시키고, 고려가 먼저 침공하지 않으면 대응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했다.

위의 기록에는 크게 2개의 정보가 있다. 먼저 金太宗은 고려와 충돌을 피하려고 했다. 과거 遼가 고려와 전쟁을 하여 엄청난 국력을 소모한 역사

33) 『遼史』 卷28, 天祚皇帝2

34) 르네 그루쎈(저), 김호동 외(역), 앞의 책, 1998, 212-214쪽.

35) 『金史』 卷135, 外國列傳 高麗 “天會二年, 同知南路都統鶻實答奏, 高麗納叛亡、增邊備, 必有異圖。詔曰: 「凡有通問, 毋違常式。侵略, 則整爾行列與之從事。敢先犯彼者, 雖捷必罰。闍母以甲士千人戍海島, 以備之。」

가 있으며, 당시 고려도 金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고려 仁宗은 金에 稱臣했고, 외교문서 작성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으며, 金의 사신들에게 후한 대접을 했다.³⁶⁾

다음으로 叛亡者들을 고려가 받아들여 방비를 증강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당시 金은 상승가도를 타고 있었고, 遼는 무너지고 있었다. 叛亡者 가운데 1116년 고려로 망명한 契丹人 집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³⁷⁾ 1123년 고려를 방문한 宋의 사신 徐兢이 기록한 『宣和奉使高麗圖經』을 보자.

또한 契丹 降虜 數萬人 중 장인이 열에 한 명이라 들었다. 그 가운데서 정교한 솜씨를 가진 사람을 뽑아 王府에 머물게 하였다고 들었다.³⁸⁾

徐兢은 고려로 도망온 契丹人이 數萬이 된다는 정보를 접했다. 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다. 유목민으로 騎兵 자원이기도 한 그들은 고려

36) 『高麗史』 권17, 世家17의 金富軾의 찬 “金이 갑자기 세력을 떨치게 되자 (인종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리치면서까지 표문을 올려 稱臣하였고 예로 北使를 대접할 길 매우 공손히 하니 이 때문에 北人(金人)들도 모두 공경하고 좋아하였다. 글 짓는 신하가 왕명으로 글을 지을 때 혹 북조(인 金을) 胡狄이라 하면 곧바로 두려워하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신하로서 대국을 섬기면서 오만하게 이같이 부를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이렇게 매년 즐거이 맹서하니 변경에는 아무런 우환이 없게 되었다.”

37) 『高麗史節要』 권8, 睿宗 11년(1116) 4월 “遼의 來遠城과 抱州城 2개 城의 流民들이 양과 말 수백 마리를 몰고 來投하였다(遼來遠 抱州二城流民驅羊馬數百, 來投).”
물론 遼帝國에 살았던 契丹人을 비롯하여 漢人, 奚人, 熟女眞人, 渤海人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高麗史節要』 권8, 睿宗 11년(1116) 12월 “契丹三十三人漢兒五十二人奚家一百五十五人熟女眞十五人渤海四十四人來投.”

38) 『宣和奉使高麗圖經』 卷19, 民庶 工技 “亦聞契丹降虜數萬人, 其工技十有一, 擇其精巧者, 留於王府.”

에 절실한 존재였다. 『高麗史節要』 권8,睿宗 12년(1117) 8월 12일 조에 왕이 南京을 방문하여 거란인들의 축제를 관람한 기록이 보인다.

왕이 南京에 이르렀다. 契丹에서 투항하여 귀화한 사람(投化人)들로서, 南京의 圻內에 흩어져 살던 자들이 거란의 노래와 춤, 여러 가지 놀이[雜戲]를 바치며[奏] 어가(御駕)를 맞이하였다. 왕이 머무르며[駐蹕] 구경했다 (王至南京. 契丹投化人, 散居南京圻內者, 奏契丹歌舞雜戲以迎駕. 王駐蹕, 觀).

위의 기록을 보면, 1117년에 거란인들이 그들 고유의 춤·노래·놀이 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거란인 대부분은 南京(현 서울)의 圻內(현 京畿) 지역에 흩어져 살았다. 南京圻內는 屬郡 3개, 屬縣 6개, 都護府 1개, 知事郡 2개로 광활하다.³⁹⁾ 그들이 현 경기도 각지에 분산 거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유목의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고려가 동화정책을 펼치기보다 그들 가진 초원의 야성을 보존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왕이 우연히 그들의 축제를 참관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날 흩어져 살던 그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라서 왕이 특별히 행차했는지, 왕의 행차를 사전에 알고 그들이 행사를 개최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왕이 한곳에 모인 거란인 집단과 직접 대면했다는 점이다. 왕은 망명한 거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

1123년 徐兢은 거란 사람이 고려기병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39) 『高麗史』 권56, 志 10 지리 南京留守官 조.

영군 낭장 騎兵은 복식의 등급이 한결같지 않다. 무릇 자주색 비단으로 만든 戰袍[紫羅戰袍]와 흰 바지[白袴]를 입고, 검은 신[皂履]을 신고, 구슬로 장식한[珠貝] 무늬 비단[文羅] 복건을 쓴 사람은 모두 고려 사람이다. 그리고 청록색 짙긴 실[緊絲]로 짠 옷감에 큰 꽃무늬가 있는 전포[大花戰袍]를 입는데, 바지는 자주색이나 황색 또는 검은색이고, 머리를 깎고 두건이 길지 않으며 정수리에 딱 맞게 쓴 사람들은 契丹의 降卒이라고 들었다. 正使와 부사[使副]가 王府에서 회합하고 奉先庫 앞에 있는 언덕 위로 돌아왔을 때 앞에 말을 몰고 가는 수십 騎를 보았다. 그들은 말방울을 울리며 치닫고 안장과 등자[鞍鐙] 사이에서 날뛰는 것이 예리하면서도 가볍고 용맹하면서도 민첩하였으니, 이것은 武勇을 자랑하려는 것이다. 먼 변방의 고려[島夷]에서 우연히 강한 병사[勁卒]를 만났으나, 남이 <자기를> 알아주기에 급급하니 또한 가소로웠다.⁴⁰⁾

말방울 울리며 가볍게 달리는 용맹하고 민첩한 騎兵을 본 徐兢이 고려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결국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얽보는 그의 논평에서 武的 실력이 없으면서 자존심만 강한 중국인의 모습이 보인다.⁴¹⁾

그는 개경에서 契丹人 기병을 목격하고 옷차림까지 정확하게 묘사했

40) 『宣和奉使高麗圖經』卷12, 仗衛2 領軍 郎將 騎兵, “服飾其等不一. 凡紫羅戰袍, 白袴皂履, 文羅爲巾, 飾以珠貝者, 皆麗人也. 至服青綠緊絲大花戰袍, 其袴或以紫, 或以黃, 或以皂, 髣髴而巾制不表, 切附於頂, 聞是契丹降卒. 使副會于王府, 還至奉先庫前, 岡阜之上, 見前驅數十騎. 鳴鑾馳驟, 跳梁鞍鐙間, 輕銳驍捷, 意欲耀武. 島夷僻遠, 偶有勁卒, 而急於人知, 亦可笑也.”

41) 『高麗史』 권98, 列傳 11 諸臣 金富軾 “왕(인종)이 (1138년 이전) 일찍이 金富軾을 불러 술자리를 차리고 司馬光의 「遺表」와 「訓儉文」을 읽도록 하였는데, 오랫동안 감탄하고 칭찬하며 말하기를, “司馬光의 충성과 의리가 이와 같았는데도 당시 사람들이 姦黨이라 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였다. 金富軾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王安石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이며 사실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北宋이 망한 것은 반드시 이것이 이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다. 契丹 降卒의 상의는 모두 청록색 옷감에 큰 꽃무늬가 새겨진 戰袍를 입었고, 바지는 각각 자주색·황색·검은색이었다고 한다. 아마도 다른 색깔은 그들 내부에 3개로 구성된 부대의 구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머리를 짧게 깎았고, 길지 않은 두건을 정수리에 딱 맞게 썼다.

인구가 많지 않았던 그 시대에 유목민 數萬의 유입은 농경 국가 고려에 적지 않은 문화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⁴²⁾ 그들은 고려에서 馬具 생산, 戰馬의 사육·조련을 담당했을 것이고, 기병의 일원이 되어 고려 騎兵力을 강화했다. 徐兢은 고려 기병이 예리하면서도 가볍고 용맹하면서도 민첩하다고 했다.

국초부터 遼의 황제나 귀족들은 擊毬에 중독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제들은 諸王 또는 大臣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擊毬 경기에 참여했고,⁴³⁾ 그들의 요구로 주변 나라에서 擊毬 전용 馬와 衣를 헌상하기도 했다.⁴⁴⁾

“(1041년 4월) 五京의 吏와 民의 擊鞠을 금지하였다[禁五京吏民擊鞠].”⁴⁵⁾

42) 『高麗史』 권14, 睿宗 11년(1116) 4월 15일 “遼의 來遠城과 抱州城 2성의 流民이 양과 말 수백 필을 몰고 來投하였다.”

43) 『遼史』 卷10, 聖宗 統和 元年(983) 7월 辛酉 “上與諸王分朋擊鞠”

『遼史』 卷18, 興宗 重熙 5年(1036) 4월 己巳 “上與大臣分朋擊鞠.”

44) 『遼史』 卷6, 穆宗 應厲(曆) 3年(953) 3월 庚寅 “如慶州擊鞠. 丁酉, 漢遣使進球衣及馬.”

『遼史』 卷12, 聖宗, 統和 7年(989) 4월 甲子 “諫議大夫馬得臣以上好擊球, 上疏切諫「臣伏見陛下聽朝之暇, 以擊球為樂.”

『遼史』 卷72, 列傳 10 馬得臣 “聖宗即位, 皇太后稱制, 兼侍讀學士. …時上擊鞠無度, 上書諫曰… 今陛下以球馬為樂, 愚臣思之…”

李桂芝(저), 나영남·조복현(역), 앞의 책, 2014, 206쪽과 322쪽.

45) 『遼史』 卷19, 興宗 重熙 10年(1041) 4월 辛亥朔 “禁五京吏民擊鞠.”

遼의 五京은 上京 임황부, 西京 대동부, 南京 석진부, 中京 대정부, 東京 요양부 등을 말한다. 5개 京에 거주하는 벼슬아치와 백성들에게 擊毬 놀이를 금지했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일반 백성들까지 그 운동을 즐기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1038년 황제가 東京에 거주하고 있는 수준급 擊毬 선수 수십 명을 수도에 초대하여 그의 近臣들과 시합을 시켰고 그 장면을 관람했다.⁴⁶⁾ 五京 가운데 고려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東京(遼陽)이 遼帝國 내부에서 擊毬 수준이 가장 높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東京은 발해인과 여진인을 통제했고, 고려와의 전쟁 때 원정군이 그곳에서 출발했다. 압록강을 넘어 고려에 망명한 契丹人인 가운데 東京 출신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며, 그들은 고려 擊毬의 수준 향상에 기여했을 것이다.

IV. 北宋 멸망과 고려 兩京 擊毬대회

金は 中原 석권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1125년에 金太宗은 太原과 陝西의 심장부를 장악하였다. 1126년 金軍이 北宋의 수도 開封 교외에 나타났다.⁴⁷⁾ 金 騎兵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北宋 欽宗 靖康 원년(1126년) 정월에 金이 開封을 공격하고, 이어 北宋과 金 사이에 講和가 맺어진 직후의 일이다. 2월 宋에 온 金의 강화 사절단은 본국과의 연락을 위해 17騎로 하여금 급히 본국으로 가게 하였다.

46) 『遼史』 卷18, 興宗 重熙 7年(1038) 12月“召善擊鞠者數十大於東京. 令與近臣角勝, 上臨觀之.”

47) 르네 그루쎬(저), 김호동 외(역), 앞의 책, 1998, 212-214쪽.

그리하여 그들은 문서를 가지고 河北의 磁州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宋의 장군 李侁이 禁軍과 民兵 2,000명(보병)을 거느리고 그들을 막았다. 17騎兵이 자신들은 강화 사절단의 일원으로 왔다가 본국인 金으로 돌아가는 도중이라고 하였지만, 李侁은 듣지 않고 공격하려 하였다. 그것은 조정의 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金의 17기병은 즉시 좌·중·우 3대로 분열하고 활을 쏘며 돌진하였으며, 순간적 행동에 놀란 宋군 2000명은 동요하여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결과는 北宋軍 절반이 전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金의 17기는 단 1기도 죽지 않았다. 이것은 北宋 측의 기록에 있는 실화이다.⁴⁸⁾

北宋 徽宗은 수도를 포위한 金軍과 협상하는데, 영토 할양과 배상금 지급 등 굴욕적인 강화를 맺는다. 그러나 韓世忠을 비롯한 주전파는 그 강화에 반발하였고, 끝내 강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金의 17기가 北宋 步兵 2천을 궤멸시킨 사건은 이때 일어났다.

『高麗史』 권15, 仁宗 4년(1126) 7월 3일 조에 北宋 황제의 원군 요청에 답한 기록이 있다.

48) 『三朝北盟會編』 卷36, 靖康 元年 2月 조, “河北路兵馬鈐轄李侁以兵二千與金人十七騎戰敗績. 和議已定金人遣十七騎持文字報其國中, 經由磁州. 李侁以身爲兵官, 且承掩殺之旨. 乃率禁軍民兵二千, 往擊之, 與十七騎相遇. 金人曰, 「不須用兵, 令城下已講和矣. 我乃被太子郎君差往國中幹事. 侁不信, 欲與之戰. 十七騎者分位三, 以七騎居前, 各分五騎爲左右翼, 而稍近, 後前七騎馳進, 官軍少卻. 左右翼兩勢掩之, 且馳且射, 官軍奔亂死者幾半.”

『文淵閣四庫全書』 350冊, 史部108, 臺灣尙務印書館, 1983, 280-281쪽.

Jing-shen Tao, *The Jurchen in Twelfth-Century Chin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6, pp.22-23.

Paul J. Smith, *Taxing Heaven's Storehouse—Horse, Bureaucrats and Destruction of the Sichuan Tea Industry(1074-1224)*,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pp.14-15.

(고려) 왕(仁宗)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조상 대대로 귀국과 교류하며 공손히 명령에 따르는 정성을 감히 한 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소. …지금 옆드려 명을 받들고 온 宣贊(북송 사신)이 전하는 (황제의) 詔書를 보니, 金人이 도리에 어긋나게 간사하고 횡포함이 점점 심해져서 (북송이) 장차 천하의 군대를 일으켜 하찮고 추악한 자들의 죄를 묻고자 하면서 우리나라(고려)도 군사를 이끌고 서로 하나가 되어 적에게 천벌을 내리자고 하였소. …생각하건데, 金人들은 처음에 우리나라(고려)에 신하로 복속하여서도 항상 침입하여 약탈하기를 일삼았지만, 우리나라는 변방의 사정이 겨우 안정을 찾았던 터라 불필요한 사단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들이 침략해 오면 무찌르고 막고, 물러나면 수비하여 지켰으니 이들을 대하는 근본 정책은 굴레를 씌우듯 엮매고 구속한다는 羈縻에 있었소. 그런데 우리 肅宗의 재위 기간에 주장 璘歌가 힘으로 다른 무리를 제압하고 권위로 여러 부족을 항복 시키고는 白山을 엿보면서 자주 우리 국경을 침범하였소. 吳達과 惠奴가 서로 계승하면서 흉악한 세력을 더욱 떨쳐 일으켰소. 이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大金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上朝(송)의 사신이 蕃土(금)에 도착하였는데, 예우하는 것이 이전에 항복한 北遼의 사신을 대우하는 것과 거의 똑같았습니다.’라고 하였소. 또 국경지역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金人이 契丹을 함락시키고 드디어 宋의 국경까지 침범하였으나, 황제가 등극한 초기라서 그들을 섬멸하려하지 않고 그들이 화친을 요청하자 허락하였다.’라고 하였소. 중국처럼 큰 나라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고립되어 있어 장차 무엇을 믿겠소?

… 우리(고려)의 모자라고 나약한 병사들로 새롭게 승기를 잡은 오랑캐(金)를 당해낸다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듯하오. 다만 군사를 훈련시키고 기계를 정비하였다가 귀국(북송)의 군대가 저들의 국경을 제압하게 되면 우리나라(고려)가 감히 서로 하나가 되어 힘을 다하지 않겠소? 천자의 위대한 힘에 빌붙어 오랑캐의 평정에 협조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오.

하늘이 살피시는 바이니 명을 받든 선찬(北宋 사신)이 결과를 보고할 때 이런 뜻을 잘 아뢰어 주시오.” 라고 하였다.

고려 인종이 한 첫 마디가 ‘우리는 北宋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한다. 이번의 군사원조는 어렵다고 하는 뜻을 전하려는 서두이다.

고려가 군대를 움직여 金軍을 토벌하라는 황제의 요청에 대한 인종의 대답은 이러했다. 金이 遼를 멸망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北宋의 수도까지 쳐들어갔다. 중국의 대국이 이러한 상황인데 소국인 고려는 어떻게겠는지 반문한다. 고려의 군사력으로 金을 무찔러 승기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앞으로 전쟁 준비를 하여 北宋이 金을 제압하게 되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인종은 金의 급진적인 팽창이 던진 공포의 그림자 안에 있었다.⁴⁹⁾ 그해 7월 19일 北宋 사신이 귀국하는 편에 위 내용의 표를 보냈다.⁵⁰⁾ 황제는 절망하였을 것이다. 당장 도움이 필요했고, 그에게 미래는 없었다.

9월 말에 다시 金軍이 총공격을 시작하여 40일간 치열한 공방전 이어진다. 1126년 11월 金이 北宋의 수도 開封을 함락시키고 徽宗과 欽宗을 비롯하여 3,000여 명을 포로로 잡아 북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고, 그곳에서 남은 생을 마친다. 金太宗은 北宋 황실 여성들을妾으로 살게 하거나 妓房으로 보냈다.⁵¹⁾

49) 『高麗史』 권15, 仁宗 4년(1126) 3월 29일 “을미 李之美를 보내어 太廟에 고하고, 金을 사대하는 일의 가부를 점치게 하였다. 그 글에 말하기를, ‘저 女眞은 스스로 황제라 칭하면서 남으로 宋을 침략하고 북으로 遼를 멸망시켜, 이미 백성으로 삼은 사람이 많고 개척한 영토 역시 넓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혹 사신을 보내 강화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병사를 길러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지의 심나는 일에 대하여 점을 치고자 하니 神께서는 잘 결정하여 주소서.’라고 하였다.”

50) 『高麗史』 권15, 仁宗 4년(1126) 7월 19일 조.

이 사건을 역사에서 靖康變이라 부른다. 北宋이 멸망했고, 欽宗의 아우 高宗이 揚子江 이남 臨安에서 즉위하여 南宋이 이루어졌다. 고려는 金이 이룩한 미증유의 성취에 떨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초긴장 상황에서 고려 국가는 축제라고 불릴 수도 있는 거대 행사를 개최되었다. 1127년 5월 6일 개경에서 兩京 擊毬 대회가 있었다.

(1127년 5월 6일)을미 왕이 영봉루(靈鳳樓)에 행차하여 개경(開京)과 서경(西京)의 신기병(神騎兵)에게 명하여 擊毬 하도록 하고 차등을 두어 물품을 하사하였다.⁵²⁾

개경 궁궐 靈鳳門 앞에 큰 毬庭이 있다. 그 門의 2층을 靈鳳樓라고 한다. 여기서 왕이 군대를 사열하거나 擊毬를 관람하였다.⁵³⁾ 인종은 서경의 神騎 선수들을 개경으로 초대했다. 북쪽에 있는 서경의 神騎가 다른 지방의 그것보다 실력 수준이 높았을 것이다. 그들은 서경에서도 엄선된 자들로 고향의 명예를 위해, 국왕의 눈에 들기 위해 시합에 모든 걸 걸어야 했다. 개경의 선수들도 이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왕이 신하들과 입석하고 있는 누각 앞 毬庭에서 선수들이 擊毬를 시

51) 『金史』 卷3, 太宗本紀 3 天會 4年(1126) 11月 “閏月 壬辰朔, 宋出兵拒戰, 宗望等擊敗之. 癸巳, 宗翰至汴. 丙辰, 克汴城. 庚申, 以高隨充高麗生日使. 辛酉, 宋主桓出居青城. 天會四年十二月癸亥十二月癸亥, 宋主桓降, 是日, 歸于汴城.” Herbert Franke, “The Chin dynasty”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New York: Published by the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1994, pp. 226-230.

52) 『高麗史』 권15, 仁宗 5년(1127) 5월 6일 “乙未 御靈鳳樓 命兩京神騎擊毬 賜物有差.”

53) 『高麗史節要』 권13, 明宗 27년(1197) 9월 “御大觀殿, 受群臣賀, 移御儀鳳樓, 親勞毬庭宿衛軍. 仍命罷歸.”

작했다. 기록이 소략하여 승부의 결과를 알 수 없고, 포상한 物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기간이다. 金이 만주와 북중국을 석권하여 국제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앞서 공고가 되어 兩京에서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을 가졌을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다수 팀별 연습게임을 수반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의 관전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두 도시의 사람들에게 결선의 기대감을 증폭시켰을 것이다.

그날 두 도시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모여들었고, 환호 속에서 각자의 팀을 응원하는 모습이 상상된다. 여기서 고려말 李穡(1328~1396)이 지은 觀擊毬라는 詩가 참고된다.

푸른 하늘 밝은 날 화려한 毬場은 널찍해라 / (毬場이) 편평하긴 손바닥 같고 환하
 긴 썬은 듯한데
 끌어온 준마들은 빛깔이 서로 엇갈리고 / 金안장 玉골레는 다투어 왕래하누나
 무리 나눈 소년들이 처음 나가 공을 친다…
 반열 중에서 武才를 특별히 총애하누나 / 날아가는 별이 반짝이듯 공이 가장 빠르고
 번개를 쫓아 나는 듯 말발굽도 경쾌하여라 / 바람이 일고 불이 달려 미처 보기도 바
 쁘니
 거리에 넘친 사람들 모두 팔짝팔짝 뛰누나 / 나도 잔년의 목은 질병을 다 떨쳐 버리고
 또한 누각에 올라 간단한 주연을 열어서 / 반쯤 지나하여 말 타고 해는 저물어갈 제
 돌아오니 의기 호쾌하여 곤궁을 다 잊었네.⁵⁴⁾

넓고 잘 관리된 擊毬 경기장에 색깔이 다른 준마들이 나오고, 옥구슬 장식 골레를 쓴 擊毬馬의 등에 금박으로 장식한 안장을 깔고 앉은 두 무

54) 『牧隱詩藁』 권8, 詩 觀擊毬.

리 짧은이가 공을 치면서 경기가 시작되었다. 빛을 내는 유성처럼 공이 빠르게 날아다니고, 공을 차지하기 위해 달려드는 기수들의 말발굽 소리가 경쾌하게 들리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그들의 움직임에 쏠려있다. 관중들이 발짝 뛰면서 환호하는 소리가 개경을 가득 채웠고, 경기장면을 구경하던 이색도 집단 도취 속에서 모든 곤궁을 잊었다.

1127년 당시 개경에는 적지 않은 서경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같은 해 3월 25일에 拓俊京을 탄핵하여 유배를 보내게 하는 공을 세운 鄭知常이 인종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다. 왕이 임한 자리에서 그와 25명의 서경 출신 관리들이 유학 토론을 한 후 향연도 베풀어졌다.⁵⁵⁾ 서경 천도 운동의 주도자였던 정지상을 비롯하여 승려 妙淸, 관리 김안·백수한 등도 5월 6일의 擊毬 경기를 관전했을 것이다.

『宣和奉使高麗圖經』城邑에서 西京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가장 번성한 西京은 城市가 王城과 거의 비슷하다.⁵⁶⁾

서경의 城市 규모가 개경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 위의 기록은 徐兢이 서경을 여행하고 기록한 것은 아니다. 1123년 개경에 거주하고 있던 애향심 강한 서경 사람에게 전해들은 것을 옮겨 놓았을 것으로 보인다. 서경인은 자신의 고장에 대한 자부심이 특별했다. 서경은 개경에 대해 뿌리깊은 경쟁심이 있었고, 인종은 그것을 騎兵力 강화를 위한 에너지로 전환하려 했다.

55) 『高麗史』 권15, 仁宗 5년(1127) 3월 25일 “乙卯 流拓俊京于岳墮島, 崔湜于草島, 尙州牧副使李侯進, 龜州使邵億, 郎將鄭惟晃, 西材場判官尹翰等于遠地.” “御麒麟閣, 命鄭知常, 講書無逸, 召從臣及西京儒臣二十五人賦詩, 賜酒食.”

56) 『宣和奉使高麗圖經』 卷3, 城邑 郡邑 “惟西京最盛, 城市略如王城.”

V. 맺음말

10세기에서 13세기는 이르는 시기에 遼·金·元이 차례로 일어나 정복 왕조를 세웠다. 유목민·수렵민의 팽창 기세가 이토록 강했던 시기는 역사상 드물었다. 그 光風에 정면으로 노출된 고려는 국가를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했다.

유목·수렵민은 먹고살기 위해 말 위에서 활을 쏘고 창을 휘둘러 짐승을 잡아야 했다. 그들은 사냥하면서 자연스럽게 騎馬 전사가 되었다. 하지만 농경민은 그렇지 못했다. 생활 속에서 무예를 단련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고려는 擊毬라는 놀이를 이용해 자국 기병의 騎槍·騎射 실력을 높여야 했다. 1104년 對여진 전쟁 이후 騎兵力의 열세를 경험한 고려는 擊毬를 장려하였다.

1121년 金이 크게 팽창하면서 遼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고 멸망의 길에 들어섰고, 1126년 金이 中原의 帝國 北宋의 수도인 開封을 함락시키고, 이듬해 황제와 그 가족 그리고 대신을 포함한 3000을 잡아갔다. 고려의 위기감은 절정에 달했다.

이듬해 5월 고려에서 개경과 서경 兩京 대항 擊毬대회가 있었다. 그것은 고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騎兵力 강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이 그 목적이었다. 擊毬가 고려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향유되고 시간이 가면서 그 수준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127년생인 어느 고려 왕자가 擊毬에 매료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1147년 5월 25일) 정해 대간(臺諫)에서 시사(時事)를 논하는 글을 올렸음에도 왕이 답을 주지 않자 귀가하였다. 왕이 이에 어사대(御史臺)에 격구용

(擊毬用) 막대기 각 6개와 안장 2벌을 내려주니, 어사대는 조서를 받들어 수창궁(壽昌宮)의 북문(北門)을 잠그고 群小배들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왕이 북원(北園)에서 노닐다가 좌우의 신하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격구 기술(吾擊毬之技)을 다시는 쓸 수 없겠구나.”라고 한 후 이윽고 공을 쳤는데 아무도 따라갈 수 없었다.⁵⁷⁾

1147년 5월 25일에 臺諫이 擊毬를 금지하는 글을 올렸음에도 毅宗이 답을 주지 않았다. 이 간언은 인종이 1146년 음력 2월 28일 사망하고 이어 왕위에 오른 19세의 의종이 어린 시절부터 즐겨왔던 擊毬에 대한 미련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왕은 御史臺에 擊毬用 막대기(毬杖) 6개와 擊毬馬 안장 2벌을 반납하여 그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몸짓을 보였다. 어사대는 수창궁의 北門을 잠그고 擊毬 선수들의 출입을 금하였다.

하지만 그날 왕은 毬場이 있는 北園으로 갔다. 마지막으로 딱 한 판만 해보겠다는 심산이었다. 왕은 武臣들과 격구 시합을 했는데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다. 왕의 상대들은 당시 고려에서 최고수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왕은 ‘擊毬之技’의 소유자로 打球의 감각이 경지에 도달했다. 경기할 때 그는 擊毬馬와 한 몸이 되어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자유자재로 전환했으리라. 擊毬에 중독되어 있던 의종은 이후에도 그것을 좀처럼 끊지 못했고, 신하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그 운동을 지속했다.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스포츠는 권력에 다가서는 유용한 사다리이다. 당연히 왕은 擊毬에 뛰어난 武臣들을 총애했다. 이것이 향후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변수가 되리라는 사실을 당시에는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57) 『高麗史』 권17, 毅宗 元年 5월 25일 “丁亥 臺諫以言事不報, 歸第. 王乃下毬杖各六, 鞍二于御史臺, 臺奉詔, 鎖壽昌宮北門, 以禁群小出入. 王遊北園, 謂左右曰, 吾擊毬之技, 無復試矣. 已而, 取毬擊之, 人莫有及者.”

鄭仲夫와 慶大升 등을 비롯한 고려 武臣政權의 주요 인물 다수가 의종 휘하에서 擊毬선수로 뛰었다는 사실은 그 운동이 고려 정치사에 남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다.⁵⁸⁾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2024.06.27. 투고 / 2024.08.07. 심사완료 / 2024.08.19. 게재확정)

58) 『高麗史節要』 권11, 毅宗 24년(1170) 9월 “(왕은) 처음에 擊毬 때문에 鄭仲夫와 친하게 지내며 대간이 간언하여도 들어주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詞章 때문에 韓賴를 친압하여 武夫들이 몹시 분하게 여기고 원망하나 깨닫지 못하다가 마침내 韓賴가 변란을 불러 자신이 鄭仲夫의 손에 죽고 조정의 신하들도 모두 섬멸 당하게 되었다.” 慶大升은 1154년생이다. 15세인 1168년(의종 22년)에 건릉교위가 되어 궁에 들어갔다. 그는 왕 앞에서 擊毬 시험을 할 정도의 수준급 선수였다.

『高麗史』 권100, 열전 13 諸臣 慶大升 “경대승은 …나이가 15세에 蔭補로 校尉가 되었고,…”

『高麗史節要』 권12, 明宗 4년(1174) 5월 “指諭 우광운·백임지, 行首 이관부·송군수·慶大升, 牽龍 차약송 등에게 명하여 擊毬를 하게하고 綾綃를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Abstract]

The Jurchen rise and Goryeo's Polo

Seo, Young-kyo · Kim, Eun-jung

Goryeo's history is a process of confronting the expansion of the Khitan, Jurchen, and Mongolia. Called barbarians by the Goryeo people, the nomads founded a series of world empires and invaded or crossed Goryeo. Throughout the 10th and 13th centuries, Goryeo had to fight for survival.

Nomads had to shoot arrows and swing spears to catch beasts to eat. They naturally became brave knights by hunting. Agricultural people did not. They could not practice martial arts in their daily lives. Goryeo had to improve its cavalry by using a game called Polo

Polo was also a military exercise. Hitting a ball with a golf club and flying it is like shooting an arrow. Two are the senses that predict the trajectory curve of a projection.

In the north, the Khitan fell and the Jurchen rose. Goryeo was nervous about the emergence of a new empire. Goryeo gave duty-free to knights to increase their cavalry. Polo competitions held by the king took place regularly. Rewards followed after the games. With the king's encouragement, Polo spread widely throughout society. Even a women's Polo team was formed in the capital of Goryeo.

In 1123, a Chinese envoy witnessed and kept a record of Goryeo cavalry. I happened to see a strong cavalry in Goryeo. They ran like a

paddle, sounding the bells. The rider, who had his foot on a stirrup and sat on the saddle, was sharp, light, courageous, and agile.

The level of Goryeo cavalry was high. But it was still weak compared to the Jurchen. In 1125, the Jurchen occupied all the territory of the Khitan and tried to conquer North China. In January 1126, the power of the Jurchen cavalry was proved to the world. In Hebei, the Jurchen 17 cavalry killed half of the Song 2000 infantrymen. None of the 17 cavalry was killed. In November, the Jurchen captured the Song capital and the emperor, his family, and 3,000 other nobles. The Noth Song Dynasty collapsed and Goryeo was in fear.

There is a record of soldiers preparing high-quality horses and luxurious harnesses at their own expense to enter the cavalry. They were honored to play polo in front of the king. It was a ladder for success. The most powerful people in the military regime, such as the Chungjungbu and the Gyeongdaeseung, were polo players owned by the king. They were the founders of the Goryeo military regime, which lasted for 100 years. The sport of polo is an indelible mark on Goryeo's history.

□ Keyword

Polo, Cavalry, Goryeo's Shin-ki, Khitan, Jurchen

[참고문헌]

『封氏聞見記』

『遼史』

『金史』

『三朝北盟會編』

『宣和奉使高麗圖經』

「閔瑛墓誌銘」

『牧隱詩藁』

『高麗史』

『高麗史節要』

『世宗實錄』

한오수, 「高麗 擊毬에 관한 考察」, 『體力科學研究』 14-1, 圓光大體力科學研究所, 1992.

르네 그루셰(저), 김호동 외(역),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 1998.

李桂芝(저), 나영남·조복현(역), 『요·금의 역사』, 신서원, 2014.

Jing-shen Tao, *The Jurchen in Twelfth-Century Chin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6.

Paul J. Smith, *Taxing Heaven's Storehouse—Horse, Bureaucrats and Destruction of the Sichuan Tea Industry(1074–1224)*,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Herbert Franke, “The Chin dynasty”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New York: Published by the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1994.